

유럽 5국 10개 도시에서 한반도 평화를 외치다!! 참여후기

(파주YWCA 김래정)

이번 평화드림오만리의 평화순례 여정속에서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나 외에 31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주신 것이 가장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는 각의 색깔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감사하다.

아버지의 든든한 포시인 은희곤 감독님, 웬지 모르게 함께 계시면 든든하다. 우경희 사모님의 따스한 표정과 항상 칭찬을 하여주시는 따뜻한 어머니같은 분이시다. 사랑하는 유경동 교수님의 유머 카리스마에 이번 여정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입가에 웃음을 짓게 하신다. 안챙기시는 듯하지만 항상 나를 챙겨주고 계시는 고마우신 파주YWCA통해 만난 어머니님 같은 이광실 총장님. 헤이그 특사 파견과 이준의 평화, 정의 사상을 멋지게 강의하여주신 존경하는 서영석 교수님. 뒷풀이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오셨다 해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셨나 마음이 짜~안 해졌다. 심자득 목사님 빨리 회복되어지시길 기도드린다. 웃음소리가 너무나 개성이 넘치시고 어찌나 시원하신지 녹음을 하고 싶을 정도의 개성이 넘치시는 조성현 목사님. 흥순계 감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힘이 되든지 처음엔 아웃사이드 같았지만 이젠 하나님의 부대안으로 좀 들어오신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정말 엄지척이다. 젊은사람도 힘든 뛰어다니는 가이드를 서나영 장로님은 끝까지 멋지게 뛰어주셨다. 체코 노천카페에서 단둘이 추억을 남긴 유머가 넘치시는 김경화 전도사님. 무표정일땐 무섭지만 웃으면 한없이 아이처럼 귀여운 성실한 현수막맨 김예목 청년. 여자청년 중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생기발랄한 김예인 청년. 악동뮤지션을 생각나게 하는 예목,예인청년이였다. 이 모든 여정을 세세하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꾸려나간 김주현 전도사님 박수를 보내드린다. 체코 식당에서 서로 북한이탈 청소년과 북한사역을 조금이나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풀밭에 쪼그리고 앉아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해질녘까지 찾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그것이 김준 선생님의 매력이다.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이쁜 지연 청년. 나의 멜로디언 가방이 무거워 보인다면 꼭 들어주고 싶다는 착한 청년.

표정이며 목소리며 절제의 멋을 뽐어내는 너무나 점잖은 김태현 조교. 고려대의 색깔 닥게 씩씩하고 무언가 거침이 없어 보이는 그러나 마음이 여린 예강 청년. 젊은 나이에 스카프가 너무나 멋스럽게 잘 어울리는 매력이 넘치는 오디 청년. 말할 때 순수함이 묻어나오는 낮을 가리지만 무언가 자신감이 넘치는 정원 청년. 작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귀엽지만 카리스마가 넘치는 가원 청년. 부드러운 말투와 부드러운 미소 속에 숨어져 있는 강인함의 눈빛이 느껴지는 외유내강이 느껴지는 대인 청년.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에 잘 어울리는 카멜레온같은 이나수 전도사님. 가장 어린 나이로 잘 따라와 준 고마운 나의 딸 이지연. 체구와 목소리가 커서 당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겁이 많아 보이는 순수한 찬영 청년. 무언가를 몰입해서 자신만의 색깔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대견한 찬우 청년. 어른과 청년들의 중간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던 지혜로운 스마일맨 한샘 청년. 사랑의 잔소리로 여기저기서 챙겨주시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 전미경 전도사님. 이번 평화순례 여정의 열정을 패션으로 표현한 현준 청년. 눈웃음이 너무나 매력적인 스마일의 마스코트 다인 청년. 서나영 장로님의 보조 가이드 역할을 너무나 멋지게 하여준 알뜰하고 유용한 쇼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림 청년. 체격은 크지만 가는 곳마다 예쁜 캐릭터의 소품을 샀던 부드러운 남자 예영 청년.

내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느낀 것을 간략하게 적어 보았다. 중요한 것은 한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다. 주님의 계획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이번 평화드림5만리의 여정을 함께 하였다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평화를 위해 남녀노소가 모여 13일의 여정을 떠났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위에서 말하였듯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가장 감사드린다. 우린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모였고 그 색깔이 서로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13일 동안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었다.

작품의 제목은 “평화드림5만리 한반도 평화를 외치다”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분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축복하여주세요~!!

모든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인도하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